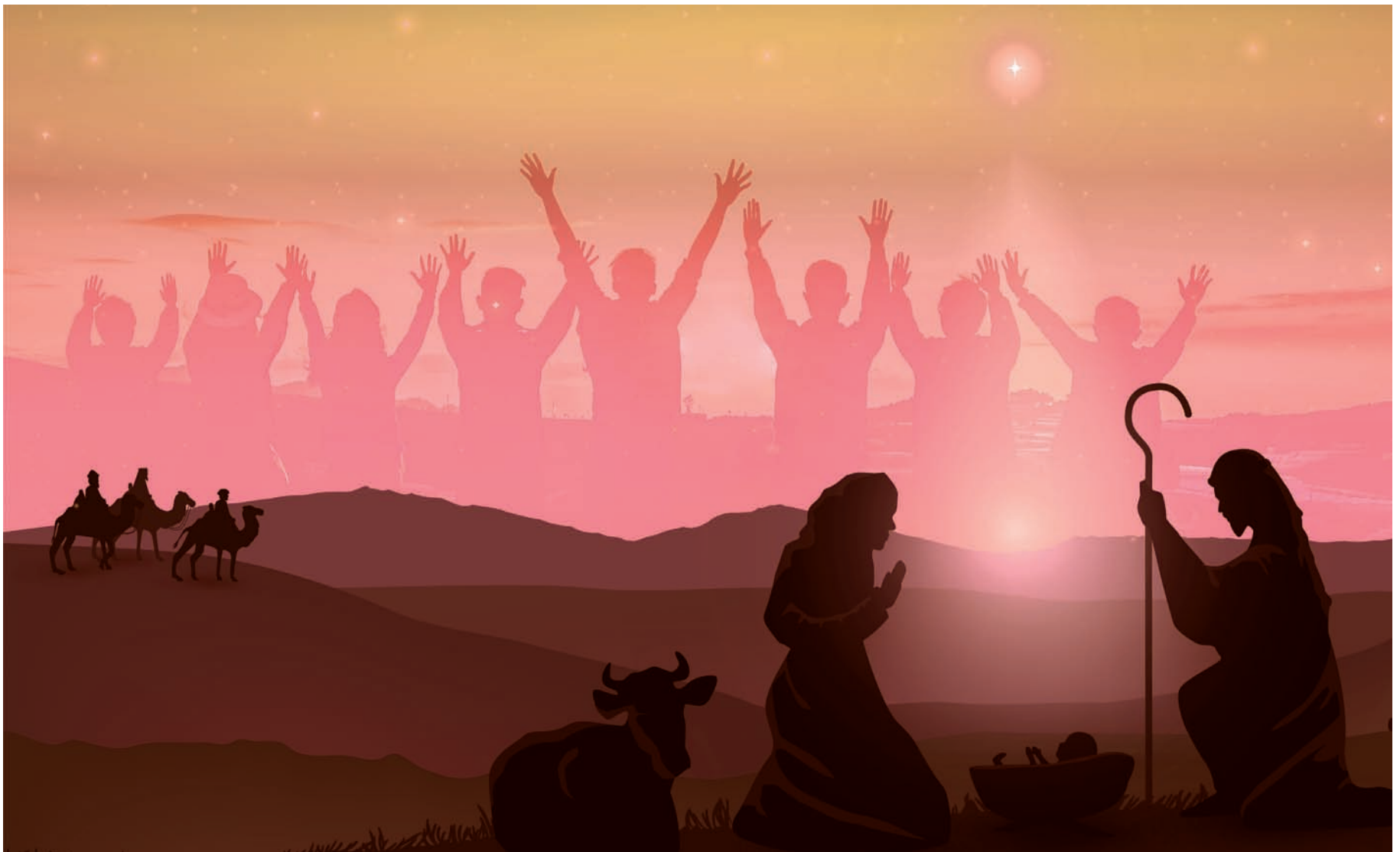




80억 인구 모두가 누려야 할 주님의 성탄

세계 인구가 11월 15일 유엔 공식 발표 기준으로 80억 명을 돌파했다. 1800년대 초반 10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20세기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1년 70억 명을 돌파하고 11년 만에 80억 명을 넘어섰다. 그 사이 세상은 점점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세기가 지날수록 극심한 빈곤과 기근, 아동 사망률, 아동노동, 범죄, 전쟁 희생자 수 등은 이전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깨끗한 물과 위생의 개선으로 질병의 발생률은 감소했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은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류가 직면한 과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고 있으며 동식물은 빠르게 멸종되고 있다. 곧 고갈될 화석 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대가로 기후 위기가 초래되었고, 이로써 생물 다양성, 식량안보, 식수와 농업을 위한 물의 접근 등에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유엔 경제사회부에서 인구 추정치를 감독하는 패트릭 겔랜드(Patrick Gerland)는 현 상황에서 기후 변화가

강력한 위협이란 사실을 인정하며,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좋은 선택이 일어날 것이고 상황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와 미래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의 인구 추이는 지역별로 다양한 편차의 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내년에는 인도에 추월당해 세계 인구 2위 국가가 될 것이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는 세계 평균 2배에 달하는 높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2.5%씩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은 인구 증가 추세가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나이지리아·콩고·에티오피아·탄자니아·이집트·인도·파키스탄·필리핀 8개국이 2050년까지 늘어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겔랜드는 또한, "2050년에 생존할 사람들의 대다수는 이미 오늘날 생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구 조사는 여러 변동요인으로 인해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

다. 무엇보다 이제는 변동요인에 기후 변화의 영향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인해 2050년까지 평균 기온이 2.5~3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 상승은 곧 농업 생산량과도 연결되며, 심지어는 내전을 촉발하기까지 한다. 기온이 올라간 지역의 극심한 더위는 사람이 도저히 거주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도시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한 해안지역의 거주민은 이동이 불가피하다.

결국 기후 변화와 국제정세는 국가 간 이주와 세계 인구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처럼 예상치 못한 재난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며, 이민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이전부터 미국과 서유럽의 인구가 대부분 이민에 의해 유지되어 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고 있다. 더구나 이주민에게 배타적인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아무

리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존하는 이주민들의 현실은 매우 답답하다. 난민들과 어린아이들이 전쟁과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시리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미얀마, 이란 등이 그곳이다. 게다가 기아, 인신매매, 학대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인구 80억 돌파의 이면에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은 "이러한 불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잘 관리된 국제협력"이라고 말한다. 이에 앞서서 중요한 것은 차별받으며 아파하고 희생하는 이주민들을 향해 먼저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것이다. 주님의 성탄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다. 차별 없이 모든 나라와 백성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80억 인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한다. 특히 이주민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부어지시길 기도한다. 본지는 성탄의 달 특집으로 이주민을 위한 성탄의 메시지를 한국어·영어·중국어·네팔어·우즈베크어로 담았다.

[인터뷰]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 한충희 목사

"줌(ZOOM)'이 '땅끝'이 됐고 이는 복음 전파의 혁명"

"이슬람 선교의 난관은 '국가 이슬람주의'지만 난민에게는 영향 못 미쳐"

온누리교회 故 하용조 목사에 의해 1992년 설립된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최근 30주년 기념대회를 가졌다. 1,450명이라는, 단일교회에서 유례없는 숫자의 해외 선교사(장기)를 파송한 TIM은 이를 가능케 했던 선교 전략과 미래 비전을 한국교회에 공유했다.

최근 경기도 용인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만난 한충희 본부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선교계에 미친 영향과 이슬람 선교의 방향성, 세계 선교계에 한국교회의 역할 등을 전했다.

한 본부장에 따르면, 코로나19는 현지 선교에 상당한 긴장감과 긍정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언제든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은 적극적으로 현지 지도자를 세우고 리더십을 이양하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또 "현지에 가지 못해 사역을 못한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게 됐다. '줌(ZOOM)'이 '땅끝'이 됐고 이는 복음 전파의 혁명"이라고 했다.

난민선교를 이야기할 때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슬람 선교의 난관은 '국가 이슬람주의'였다. 자기네 땅에서는 자국민들을 '노 터치하라는' 것이고 선교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며 "(그러나 난민은) 그 나라 땅을 벗어났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한순간에 흩어버리신 것"이라고 했다.

선교사 파송 세계 2위 국가로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전한 그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경제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 중)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커 보이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얽매어 있고 신뢰를 주지 못한다. 중국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통일 이후 한국을 통해 세계선교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본부장은 프랑스대사관 총영사,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를 역임하는 등 평생을 외교관으로 지냈다. 오스트리아 빈 근무 시절 통렬한 회개와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세계선교의 비전을 품었다. 뢰팅트르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2019년 TIM 본부장에 임명받은 그는 '총체적 선교', '융합선교', '국제 협력과 네트워크', '플랫폼 사역' 등 현대 선교의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다. 다음은 한 본부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선교 현장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긍정적 인 면도 있나.

한충희 본부장(이하 한): 이동의 제한은 선교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가 총체적인 위협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다. 선교사들이 과거에는 현지에 오래 머물렀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

다는 생각에 빨리 현지 지도자를 세워 리더십을 이양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생겼다. 이는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다. 안일함과 나태함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현지에 갈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사역들을 대체하게 됐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기술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일깨운 것이다.

온라인 사역은 생각보다 유용했다. 예배는 물론, 1대 1 제자양육도 진행한다. 오프라인 대비 8, 90%의 효과가 충분히 있음을 검증했다. 어떠한 이유로 현지에 가지 못해 사역을 못한다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는 것이다. 'everyone' 'everywhere',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전 세계 어디서든 모일 수 있다. 심지어 북극에서라도.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은 없다. 이제 '땅끝'은 오히려 '줌(ZOOM)'이다.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혁명이라고 본다.

또한 인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가 극치를 이룰 때 한순간에 자신만만한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창조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일깨워 줬다.

— 전 세계에 이슬람의 물결이 거세고, 국내도 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무슬림 난민이 급증하는 등 환경도 격변하고 있다. 이슬람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한: 이슬람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고 있다. 바로 난민선교다. 제가 유엔 차석대사를 지내던 2014년 난민 이슈가 크게 발생했다. 시리아 난민이 유럽으로 이동하며 보트 안에서 많은 어린이들도 죽었는데, 금세기 글로벌 이슈 중 가장 중요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도 했다. 난민 사태는 전혀 계획적이지 않기에, 예측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국제기구도 없다. 그들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본다.

이슬람 선교의 난관은 '국가 이슬람주의'였다. 주권을 강조하며 자기네 땅에서는 자국민들을 '노터치'하라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비자를 받기 힘들뿐더러 추방당하기 일쑤였다. 몇십 년 걸려 단 한 사람 회심시켰는데, 결국 사회로부터 이탈의 두려움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다. 선교사들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난민은) 그 나라 땅을 벗어났기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한순간에 흩어버리신 것이다. 타국에 온 무슬림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슬람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는데,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고 메카에 갈 수도 없고, 자신



한충희 목사
前 UN 차석 대사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



Feed The Children (사)한국위원회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 지원, 영양 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 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외 사업을 행하며, 국내 이주민 가정의 어린이들을 섬기며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20억의 인구가 충분한 영양을 보장 받지 못하는 가운데 Pandemic으로 1억 3천만 명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나눔이 더욱 필요합니다

(사)피드더칠드런 한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 전화 031.381.1474
<http://feedthechildren.or.kr>



들이 믿어 온 신앙 체계와 정체성, 세계관에 근본적인 회의감이 스며드는 것이다. 거기에 자신들을 도와주는 곳은 모두 크리스천 NGO, 교회들로,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제공하고 자녀교육까지 시켜 준다.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변하는 것이다.

무슬림들에게는 나의 죄를 위해 누군가가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개념이 없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자신들을 돕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궁극적으로 구속에 대한 이론을 수용하게 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난민선교다.

—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인 대한민국이 세계선교계에서 미치는 영향은.

한: 19세기 서양은 동아시아 선교를 매우 중요시하고 중국과 인도, 일본, 이 나라에 집중해 선교사와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금 보면 평양대부흥이 유일한 부흥이었다. 당시 서양선교사들은 '앞으로 중국과 일본의 선교는 조선 사람이 감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일본은 한국을 개화시키고자 했지만, 이미 복음을 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이 미개한 나라였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이후 식민지와 분단을 주셨는 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하루속히 먼저 남북이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를 넘어 세계선교의 마지막 챕터를 한민족을 통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통일 이후 한국을 통해 세계선교가 더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아시아의 교회를 깨우게 되길 소망한다.



▲ 두란노해외선교회 한총회 본부장은 "이슬람 선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고 있다. 바로 난민선교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점령한 역사가 없다는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유롭다. 또 누군가는 경제력이 뒷받침됐기에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던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보다는 자유민주주의국가였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유엔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을 좋아하고 롤모델로 삼고자 한다. 한국의 강점인 문화, 케이팝 등이 선교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고, 통일이 된다면 시너지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 일평생을 외교관으로 지내다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한: 35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다. 국제 문제에 늘 관심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회심한 것은 15년 쯤 지난 뒤였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근무할 때 한인교회 성령수련회에 참석해 큰 은혜를 받았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다. 2박 3일간 하루가 천 년같이 느껴질 정도였다. 모든 회개가 터져나오고 눈물 콧물이 흘렀다. 주님 앞에 부서지는 것 같은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교관으로 부르신 이유를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다.

이후 북한에 경수로를 짓는 일로 여러 차례 다녀오고, 평양대부흥의 역사적 장소인 장대현교회 터를 비롯해 봉수교회 등을 방문하며 복음 통일의 필요성을 느꼈다. 북한 동포들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를 위해 독일 통일을 연구했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그 날이 더 빨리 올 것이라 기대한다. 많은 이들의 기도가 됐다. 또 프랑스와 나이지리아에 근무하며 아프리카 사람들의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목격하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존엄성이 회복되는 총체적 선교의 필요성을 느꼈다. 외교관으로 은퇴할 무렵 햇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선교단체를 맡게 됐다. 현지 선교사로 나가진 못했지만, 가능하다면 레바논, 몽골 등 곳곳의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 본부장으로 꼭 이루고 싶은 소명은.

한: 레바논이나 시리아인 중에는 쿠르드족이 많다(세계 최대 유랑 민족인 쿠르드족은 인구만 3, 4천만에 이르며, 이란·이라크·튀르키예·시리아 등

에 흩어져 있다. 종교는 대부분 무슬림이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소망이다. 레바논에 난민선교센터를 세우고 쿠르드족을 위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도 크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선교 헌신자가 되겠다는 청년들이 쏟아지고 있다. 세상은 힘이 강하고 복음은 약하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면 더 갈증만 커지고 궁극적인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젊은이들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면, 모든 젊은이들이 교회로 올 것이다.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선교와 남북통일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성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지인 중심의 자생적 선교, 총체적 선교로 나아가는 데 초석을 다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다문화 사역의 중요성	5면
[성탄특집] God's Love for People on the Move	8·9면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6면
向着移居民的神之慈愛	7면
आफ्वासीहरूको लागि प्रेम	10면
Xudoning muhojirlarga bo'lgan sevgisi	16면
이주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	12면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023학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Teaching the Word, Changing the World!

1월전형 원서접수: 1/25 (수)까지

지원과정

목회학석사(MDiv), 일반신학석사(MTS), 문학석사(MA 기독교상담학/기독교교육학 전공), 교육학석사(MEd), 예배음악석사(MWCM), 신학석사(ThM), 철학박사(PhD)

입학문의

02)570-7375, admissions@ttgu.ac.kr

www.ttgu.ac.kr



햇불트리니티 전략적선교장학금(TSMS) 프로그램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이하 햇불트리니티)의 전략적선교장학금(Torch Strategic Mission Scholarship: 이하 TSMS)은 복음화 비율이 낮은 선교지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체계적인 신학훈련을 통해 현지의 복음화에 힘쓸 역량 있는 목회자와 기독교 사역자로 양성하기 위한 장학프로그램이다.

TSMS 장학생은 △목회학석사 △문학석사(기독교상담학 전공·기독교교육학 전공) △교육학석사 △신학석사과정에서 매년 10여 명이 선발되며,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 및 기숙사비(식사 포함)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는다. 2022년 10월 기준 45개국 207명의 TSMS 장학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고 고국 및 선교지로 돌아가 현재 목회자, 선교사, 신학교 교수, 전문상담가, 기독교교사로서 현지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다.

햇불트리니티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꾼 양성을 목표로 1998년 국내 최초 전 과정을 영어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으로 시작되었다.

햇불트리니티는 특정 교회나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신학대학원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어느 곳에서도 섬길 수 있는 사역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학생과 교수는 장로교·침례교·감리교·성공회·하나님의 성회 등 각기 다른 교단 배경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햇불트리니티가 가진 장점 중 하나는 타문화 훈련이다. 매년 25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복음



주의 신학을 배우게 된다. 또한 복음이 어떻게 타문화권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지를 토론과 생활을 통해 나누고 배울 수 있다. 선교적이며 다문화적인 학습 환경은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학생 모두에게 앞으로의 선교사역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TSMS 장학생은 재학기간 중 국내 교회에서 영어예배 사역과 자국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사역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회 및 신학교의 사역자로서 필요한 신학적 기반을 다지며, 한국 교회의 특성과 다양한 사역의 모델을 배우게 된다.

TSMS 프로그램의 지원자격은 전략적 선교 국가 출신으로, 자국 정부가 인정하는 정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선교현지 복음화에 힘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TSMS 프로그램에 지원하려면 학교 홈페이지(www.ttgu.ac.kr)를 통해 Pre-application를 제출해야 한다. 봄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Pre-application 지원이 매년 9월 30일에 마감되며, Pre-application의 1차 자격심사에 합격한 지원자들에 한하여 2차 서류심사가 진행된다.

TSMS 프로그램은 국내 교회, 기관 및 개인 후원자의 협력과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TSMS 후원기관을 통해 장학기금뿐만 아니라 의류지원, 식사 제공, 문화탐방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졸업생 추천사〉

대니 만지(우간다, 목회학석사, 22년 졸업)
"햇불트리니티에서 공부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일에 대해 교수진을 통해 많은 감동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시며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교회개척 사역과 보육원 사역을 병행할 것이며, TSMS를 통해 많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이웃에게 나도 축복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압후루 돌리 (태국선교사, 문학석사 기독교교육학 전공, 2017년 졸업)

"기독교교육학 교육과정을 통해 시야가 넓어지고 사역에 새로운 통찰을 얻어 태국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가장 유익했던 점은 일주일간 수업에서 무엇을 배우든지 주말에 교회사역에서 다양한 역량으로 그것을 실행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용적이고 매력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프로그램이며, 교실 안팎에서 기독교 교육을 경험하고 배우고 이해하게 됩니다."

장 폴 다기지마나 (르완다, 2018년 졸업)

"기독교상담학 과정은 제 마음을 감동하게 했고 트라우마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강의와 실습을 통해 저는 저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병원의 교목이자 지역 교회의 목사로서 환우들과 교인들이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상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트라우마에서 치유되었다는 많은 간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 예비 지원자들도 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독교상담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DIASPORAnewspaper
디아스포라신문

디아스포라신문이 미션펀드 후원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월 1만원의 후원은 디아스포라신문을 통한 이주민문서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 264401-04-34307

미션펀드후원방법 <https://go.missionfund.org/diasporanewskr>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성춘 선교사

바울선교회 국제본부장

이주민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흩어진다. 어느 경우든지 그들에게는 환경을 통해서 감당해야 할 긍정적 사명이 있으며 이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새로운 이주지는 이주민이 일정 기간 머무는 곳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한다. 이때 다문화 사역은 담보 상태의 교회현장에서 영적인 돌파구가 될 잠재력이 있다.

기독교인의 나그네 섬김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한다. 다양한 사람과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소수더라도 그 중 복음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서 자국민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믿음으로 성장하여 제자가 되는 이들은 고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다음 소개할 사례가 바로 그 예이다.

네팔의 복음전도자 프렘 프라단(Prem Pradhan)은 1950년대 극히 소수였던 네팔의 크리스천을 지금의 10만 명으로 늘리는 데 기여하였다. 그는 본래 네팔 공군장교로, 북인도에서 잠시 근무하던 시기에 인도인 복음전도자 바크흐트 싱(Bakht Singh)의 설교를 듣고 개종하였다. 그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간 후 감옥에 가야 했지만, 프라단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다.

프라단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크흐트 싱(Bakht Singh)은 인도에서 교회 개척운동을 시작하여 5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다. 그 역시 캐나다 위니펙 주에서 유학생으로 살아가다가, 크리스마스에 어느 노인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이방인을 향한 환대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변화되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다문화 사역을 통한 나그네 섬김의 중요성 이주민 사역현장은 한국교회를 향한 영적 돌파구

필자는 이전에 독일 튀빙겐에서 다문화 사역과 국제교회 사역을 하였다. 독일 기독교가 대학 캠퍼스의 자국민에게 사역을 집중할 때,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 사역에 집중하면서 독일인을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또한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이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섬기며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 당시 운영위원으로 협력해주었던 독일 성경교사이자 설교자인 베르너가 이야기해준 것이 있다. 그는 중국의 한 지도자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유학생생활을 했던 사실을 알려주면서, 만약 하이델베르크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잘 받아주고 대접하였다면, 서구세계와 기독교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더라면 중국과 아시아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문화 사역의 영적인 돌파력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은 고향을 사모하고 포로 생활을 한탄하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다(시 137). 그들은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의 종이 된 자들이었다(사 49:7).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이방의 빛으로 땅 끝까지 인도받은 자들이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해방되어 고국으로 되돌아가는 일보다 그곳에서 이방의 빛으로써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했던 것이다. 그들은 포로된 모습 속에서도 그 성읍과 거주민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들이 있는 곳이 땅끝이 되었으며, 보냄 받은 그곳에서 선교적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로 서고 고국으로 돌아가면 가족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이주민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현재 독일의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주민들은 실제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 낯선 곳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국제결혼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독일 가정

을 복음화하는 열성을 지녔으며, 함께 연합하여 예배드린다.

르완다와 짐바브웨 이주민들 역시 주변국에서 교육열과 성실을 인정받고 있으며, 현지인을 섬기고 선교적 헌신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 비록 미등록외국인의 신분으로 어려운 삶을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선교적 백성으로서 헌신하고 사명을 완수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바울선교회는 현재 태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중 소수의 라오족이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한 형제는 태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이루었고, 고국을 향한 선교의 마음을 품으면서 고향의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복음도 전하게 되었다.

태국은 불교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으로 인해 기독교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사례처럼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소수민족과 교류하고 이들을 동원한다면 태국의 선교적 지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오족, 카렌족, 몽족과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교회의 형태는 태국교회를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임대료가 아닌 건축을 통해 공간을 확보한다면 그 지역과 마을의 공동체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바울선교회의 사역

한국을 찾아오는 이주민 한 사람, 한 교회 현장과 함께하는 이주민 사역현장은 한국교회를 향한 영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는 한국교회 중심의 세계선교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과의 협력과 동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세계를 품는 영적 벨트로써 기도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육 대륙 선교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1) 91개국 선교지

바울선교회는 현재까지 91개국에 487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다양한 나라에 선교사가 파송된 까닭은 전 세계에 기도 벨트를 형성하고 현지인 선교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재차 파송

하기 위해서이다. 다문화 사역은 국내 뿐만 아니라 선교지 현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다.

2) 국내 다문화 선교현장

현재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바울선교회 선교사는 21명 12유닛(9가정, 3싱글)이다. 그들의 사역현장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서울에 소재한 영산다문화비전센터(이광운, 이영분 선교사)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한다.

영산다문화비전센터의 다문화 사역은 선교사 2가정, 필리핀 목사 등의 연합과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센터에서는 한국어-중국어 교실, 외국인 돌봄, 큐티모임 등의 사역들이 필리핀인과 아시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영산교회(담임목사 이종환)는 무상으로 다문화센터를 위한 사역공간을 제공해주고 있다. 또한 다문화 사역자들이 정규적으로 진행되는 큐티모임에도 함께 하며,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문화비전센터는 영산교회와 성도들에게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교회 안에서 외국인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며 섬길 수 있는 선교의 장을 열어주었다. 교회와 센터는 이처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있다.

다문화비전센터는 근처에 외국인을 위한 숙소와 쉼터인 '미션 홈'을 마련하였으며, 이 공간은 선교사 게스트룸과 영산교회 성도들을 위한 모임 장소로도 쓰이고 있다. 센터 안에서 진행되는 영어 예배 곧 다국적 다문화교회(Jesus Shepherd Global Fellowship)는 이광운 선교사가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필리핀 목회자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는 20여 명의 필리핀 성도가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헌금도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단계에 와 있으며 이들 중에 다문화 역파송 사역자가 나오고 있다.

3) 은퇴자를 통한 다문화 사역의 활성화

앞으로 바울선교회는 5년 안에 20유닛이 은퇴하고, 또 5년 안에 51유닛이 은퇴하게 된다. 영산교회와 영산다문화비전센터의 사례처럼 은퇴하는 선교사에게 다문화 사역의 좋은 협력의 장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선교단체와 협력교회의 연합으로 다문화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고 한국교회도 영적인 힘을 얻기를 바란다.

[성탄특집] 8-9면을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이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 기독교인에게 크리스마스는 친척 및 친구들과의 의미 있는 재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과 고립되었다는 느낌은 두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칠까? 요한 1서 4장 7~21절의 말씀은 이런 우려에 대해 성탄절의 본질을 신성한 사랑이라고 선언한다. 크리스마스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다.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포용적인 사랑을 나타낸다. 누군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손을 뻗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 자녀, 친척, 친구, 동료, 이웃 등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9절에 나오듯 "세상"에 향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특정 민족과 집단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포용적인 것은 차별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선택적이지 않다. 그분의 사랑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생을 향한 필요성은 우리의 지위, 배경, 성취, 인종, 계급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여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임에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갈보리 십자가는 악의 물결에 휩쓸린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죄인을 품는다.

두 번째, 성탄절은 하나님의 변혁적 사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에게 알려진 모든 형태의 사랑을 대신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하는 사랑이다(요 3:16).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희생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10절) 하나님께서 친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라고 선포하며 예수를 대중에게 소개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죄의 용서가 우리 마음에 강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18절)고 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성탄절은 하나님의 광범위한 사랑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포용적 사랑이 편애와 차별을 배제하고, 하나님

의 변혁적 사랑이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모두 특징으로 하는 한편, 하나님의 광범위한 사랑은 온갖 경계와 영역을 초월한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특정 민족만이 아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범위에 지리적, 민족적 한계가 없다(9절, 14절). 죄의 확산은 하나님의 광범위한 사랑을 해결책으로 한다. 사람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한다. 요한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15절)고 선언한다. 여기서 "누구든지"의 정체성은 전 세계적으로 열려 있다. 하나님의 광범위한 사랑은 모든 종류의 경계를 초월한다. 디아스포라로 사는 사람이나 고국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어느 미군 부대가 독일에 배치되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 미군이 강하게 저항하던 독일군에게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전사자의 친구였던 두 명의 군인에게 시신을 묻을 수 있는 공동묘지를 찾아 전쟁 후 유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임무가 주어졌다. 두 군인은 폭우 속에서 사망자를 어깨에 메고 몇 마일을 걸어 가톨릭교회가 소유한 공동묘지에 도착했다. 하지만 전사한 병사가 개신교 신자라는 것을 알고, 신부는 "죄송합니다. 그 묘지는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개신교도가 있을 곳이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였다. 결국 신부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두 병사는 전사한 병사의 시신을 묘지 울타리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으로 가져갔다. 그들은 땅을 파기 시작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밤이 깊었지만, 두 병사는 간신히 얇은 무덤을 파고 기도를 한 뒤 죽은 동료를 묻었다. 떠나기 전에 그들은 표식으로 무덤 위에 나무 십자가를 놓았다.

전쟁이 끝난 후, 전사한 군인의 부모는 독일에서 아들의 유해를 집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당시 시신을 묻은 두 명의 군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이 가톨릭 묘지에 도착했을 때, 두 병사는 친구가 묻힌 무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무덤을 찾지 못해 결국 교구 신부를 찾아가 물었다. "우리가 친구를 묻으려 왔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신부님은 묘지에 친구를 묻는 것을 거절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바로 바깥에 친구를 놓고 나무 십자가를 표지로 세웠습니다. 혹시 무덤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노신부는 묘지를 뒤덮은 숲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그날 밤 나는 여러분의 행동에 감동 받아 가톨릭 묘소의 울타리를 연장하여 매장된 병사 묘를 울타리 안에 있게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울타리를 움직여 용서가 필요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황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포함시키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용적 사랑의 깊이를 전부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변혁적 사랑의 힘도 충분히 가늠하지 못하고, 그분의 광범위한 사랑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성탄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경이로움과 그 힘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람이 되는 교회

고현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 11길 17-7(고현동)
전화 : 055-635~5511, 팩스: 055-637~5513
www.gohyun.org

담임목사 / 박정곤

- 부목사 / 변건식 최윤갑 조생준 강성관 방영진 김준웅 서 훈 최기천 김승운 문항기 강민환
- 기관목사 / 김성은 김옥천
- 장로 / 심종화 정해춘 강현성 유진옥 이상호 박달수 원용삼 옥영섭 천영을 신득수 이창진 정달진
- 협동장로 / 임낙연 윤정명 무임장로 / 김진옥 김성현 원로장로 / 옥기철 옥금석
- 은퇴장로 / 김윤탁 박광운 옥치안 이용일 강영식
- 강도사 / 하진호 전도사 / 안복희 강영애 사역자 / 천영숙 오정미

2021년 고현교회 선교사 현황

- 파송선교사 21가정 : 김경용, 윤보석, 황정대, 박진옥, 박변화, 고덕현, 윤상혁, 김 후, 김숙자, 조영태, 이철선, 김현철, 손상호, 윤 옥, 이진호, 김광선, 이임호, 김상민, 조운태, 박양제, 정보애
- 협력 후원선교사 213가정 25싱글 협력 후원 현지인 사역자 31가정 협력 후원 선교단체 347간

[성탄특집]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8-9면을 중국어로 번역·요약하여 게재합니다.

向着移居民的神之慈爱

全世界数以百万计的人在远离故乡的地方和自己心爱的人一起纪念圣诞节。对于基督徒来说,圣诞节是和亲朋好友重逢的具有重要意义的时刻。一想到远离家人,就有说不出的无力和孤独,人们害怕这样的孤独。如此说来,神的爱也会让在外漂泊的人们感受到这种情绪吗? 约翰1书第4章第7~21节话语针对此忧虑明确地告诉我们,圣诞节的本质是神圣的爱,我们将在下文中探讨圣诞节意味着神何样的爱。

首先,圣诞节表明了神的宽容之爱。如果有人问:"绝对没有人爱我。"那他绝对是没有听说过神的爱。神的爱指向所有人,祂爱的对象包括父母、子女、亲戚、朋友、同事、邻居等所有人。第9节中神的爱指向"世间",这便指明包括所有人。以马内利(与我们同在的神)的耶稣不是为了某个民族或群体而来,而是为了需要永生的全人类而来。神的爱之所以包容,是因为它排斥不平等及差别对待。

有些人试图独自珍藏爱情,有些人害怕被背叛,甚至不敢尝试去爱,或是为了自己的利益选择性地爱。然而神的爱与此正相反,祂的爱并不是选择性的爱,他不会差别对待人。神爱我们,因为我们需要常在基督里靠着基督存活。永生的必要性被赋予了我们所有人,无关我们的地位、背景、成就、人种、阶级。即使我们灵命破损,神也爱我们,纵然是罪人,神也依然如故地

爱我们。神的爱长阔高深,天父所展示的各各他的十字架包容了被罪恶的浪潮席卷的人以及世上所有的罪人。

其次,圣诞节展现了神的革新之爱。经历神爱的人会发生改变。神的爱代替了人类已知的所有形式的爱,神的爱是肯牺牲自己独生子的爱(约3:16)。耶稣基督为我们舍了自己的生命,如此向我们展示了爱的真谛。有些人误认为基督的死是他使命的失败,其实,十字架的死是神的自我牺牲最美善的表现。基督是为我们被差而来的,"不是我们爱神,乃是神爱我们,差他的儿子为我们的罪作了挽回祭,这就是爱了。"(第10节)。神先差他的儿子,先爱了我们,由此我们才能爱神。

施洗约翰向众人介绍耶稣,宣告耶稣是:"看哪,神的羔羊,除去世人罪孽的。"(约1:29)。神差派耶稣除去我们的罪,我们确信借着神的爱我们的罪被饶恕,是因为有话语告诉我们:"爱里没有惧怕;爱既完全,就把惧怕除去。因为惧怕里含着刑罚,惧怕的人在爱里未得完全。"(第18节)。任何惧怕死亡并面临审判的人都需要神的爱。

世界著名爵士音乐家吉米·欧文斯(Jimmy Owens)在他的歌曲《他为我们而死(He Died for Us)》中写道:"有一堵坚固的墙,那墙是因着我们的不洁而被垒造,但是耶稣基督用祂的宝血推翻这墙,打碎一切枷锁。神的

爱就如将伤口的脓挤出,让人长出新肉。"

再次,圣诞节表明了神的广泛之爱。神的宽容之爱排斥差别对待和偏爱,神的革新之爱特点是给与和接受,而神的广泛之爱则超越任何边界和领域。神差派他的独生子,不是为了某个民族,而是为了全人类。神的爱没有地理和民族的限制(9节和14节)。神广泛的爱是解决罪扩散的最好方法,人类可以在任何地方感受神的爱,圣诞节向我们保证神的爱不会疏远世上任何一个人。

耶稣取了人的形象,钉死在各各他的十字架上,且于第三天复活,好让所有人都能借着耶稣亲近神的爱。神爱的宽阔是宇宙级别的(15~16、19~21节),他的爱超越时空。约翰说:"凡认耶稣为神儿子的,神就住在他里面,他也住在神里面。"这里的"凡"已经告诉全世界,神广泛的爱是赐给所有人的,这爱超越了所有民族,不管是在外移民群体亦或是生活在故土的人,都能得到这份爱。

二战期间,有一支部署在德国的美军部队陷入了激烈的战争,一名美军被强烈抵抗的德军击中头部,当场死亡。曾是死者朋友的两名军人被赋予任务去寻找可以埋葬尸身的墓地,以便在战争结束后可以将遗骸带回祖国。两名军人扛着死者在暴雨中走了几英里路,来到了一个属于天主教教会的墓园。但是得

知战死的士兵是新教信徒后,神父说:"对不起,这墓地只能被天主教徒使用,这里没有新教徒的归属地。"最终没能说服神父的两名士兵把战死的士兵的带到了离墓地栅栏只有几英寸的地方,他们开始挖地,雨愈下愈大,夜越来越深,两名士兵终于挖了个浅浅的坟墓,献上祷告之后埋葬了死去的战友,临走前他们在坟墓上竖了一个木制十字架作为标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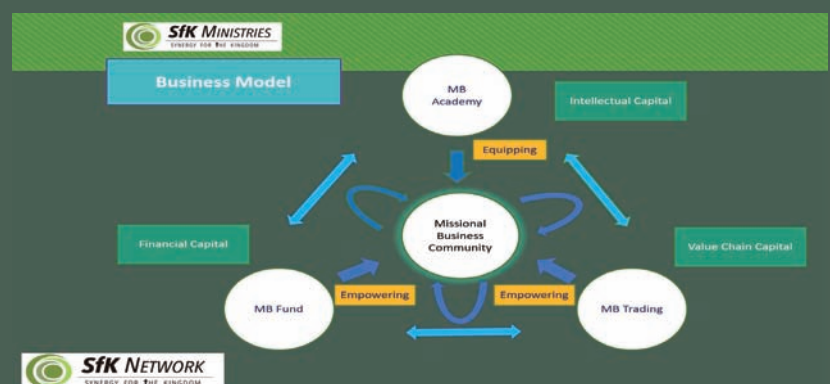
战争结束后,阵亡军人的父母决定把儿子的遗骸从德国带回家,他们向当时埋葬尸体的两名军人请求帮助。两名军人来到天主教墓地找了半天也没能找到战友的坟墓,最终找到教区的神父问道:"还记得我们来埋葬朋友的那个夜晚吗? 神父拒绝让我们的朋友埋在墓地,所以我们把朋友葬在了栅栏外面,并且立了一个木制十字架为标志。"老神父凝视着墓地的树林,过了好久,眼眶泛红地说:"那天晚上,你们的行动让我十分感动,我加建了天主教墓地的围栏,把埋葬的士兵围在了围栏里。"

基督降到世上时,神就移动了他爱的围栏,将世上所有需要宽恕的人,不论处于何种境地或居住在何处,都围到了他的爱里。我们无法测透神长阔高深的爱,无法衡量神革新之爱的力量,也不能了解他广泛之爱的本质。但是,我们每个人却都能在圣诞节中体验到神之爱的奇异和力量。

번역도움 묘초초

SfK (Synergy for the Kingdom) Network

- SfK (Synergy for the Kingdom) 은 미국과 한국에 사역본부를 두고 현재 16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BAM 전문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선교기업공동체에 속한 멤버기업들을 지속적인 훈련과 (Sustained Training), 임팩트 있는 투자와 (Impact Investment), 왕국적 유통을 (Kingdom Trade) 통해 총체적으로 섬기는 선교단체입니다.
- SfK는 6개 사역 우선순위그룹이 있는데 이주민을 섬기는 사역이 이 중에 하나입니다.
- SfK의 훈련프로그램 중에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BMT (Business Management Training) 한국어 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16주동안 30개 동영상강의와 개인별 프로젝트, 그리고 일주일에 2시간의 실시간 토의를 통해 실시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info@sflife.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탄특집]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영문기고를 게재합니다.

God's Love for People on the Move

Christmas Reflections from I John 4:7-21

Gardner Webb University
선교학 교수,
위디국제선교회 국제이사



글

Dr. Tereso Casiño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celebrate Christmas away from their loved ones and homelands. The thought of being away and the feeling of being isolated can be frightening because for Christians, Christmas is a meaningful time of reunion among relatives and friends. How then can God's self-definition of love impact people on the move? Those living in diaspora contexts may wonder if God's love reaches out to them, too. I John 4:7-21 speaks to this concern, declaring the essence of Christmas as divine love. Precisely stated, Christmas speaks of God's love that is intrinsically inclusive, transformative, and extensive.

First, Christmas unpacks God's inclusive love(Vv. 9-14). If someone says, "No one loves me," the person may not have heard of God's love that reaches out to all people. Divine love includes everyone—father, mother, brother, sister, children, relatives, friends, colleagues, or neighbors, to mention a few. God's inclusive love rules out any favoritism(Vv. 9-10). The phrase, "among us," speaks of all people—leaving

out no one. God's love includes everyone as expressed in verse 9 through the phrase "the world." Jesus as Immanuel(God with us) did not come only for a particular people group but for all who need eternal life.

God's love being inclusive rules out discrimination(Vv. 9-16). Some people prefer to keep love to themselves. They fear about friends or others betraying them, so they stop loving people. Others become selective in dispensing love. They choose to love only those who can help them in business or help them get good positions in schools or companies. In contrast, God's love is never selective and does not discriminate people. God loves us because of our need to live in and through Christ(v. 9c). Our need for eternal life puts us all on the same level regardless of our family background, educational attainment, employment, color of skin, economic status, or standing in society. God loves us even with our spiritual bankruptcy. God loves us as we are—sinners in need of forgiveness. As I once wrote in a poem, "God's love extends far and wide; To those swept by evil's tide; On Calvary's tree the Father showed; His love includes all sinners in the world."

Second, Christmas unfolds God's transformative love(Vv. 9-10).

Change happens when a person experiences God's love. Divine love transforms lives. God's love supersedes all forms of love known to humanity. This is because God's transforming love requires self-giving(I John 3:16). Jesus Christ showed what love is by giving his own life for us—first as a baby in a manger, secondly, as the Savior of the world. God's love is best understood in terms of self-giving. Some people misunderstand the death of Christ as an ugly display of God's love, while others view it as a presentation of Jesus' failure in his mission. However, the cross is the most beautiful display of God's self-giving. Because of our sins, Christ gave his life for us: "This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as an atoning sacrifice for us"(v.10, NIV). We are now able to love God because God loved us first by sending his own Son to us.

God's transforming love also results in sin-taking(Vv.10, 17-18). Forgiveness in the act of sin-taking is a precious gift through God's transforming love. Jesus became an "atoning sacrifice for our sins"(v. 10). John the baptizer introduced Jesus to the public by proclaiming,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John 1:29, NIV). Evidently, Christmas is not just about receiving but also taking.

At Jesus' birth, God acts to take away our sins. Forgiveness through God's love instill a strong sense of confidence in our hearts because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because fear has to do with punishment"(Vv. 17-18, NIV). Anyone who fears to die and face judgment needs God's transforming love. In his song, "He Died for Us," Jimmy Owens writes, "There once stood a wall: Deep and wide strong and tall. There it stood built of all our unholiness. But this Man [Jesus Christ] by his Blood, broke the wall, loosed the flood, of the mercies of God, to mankind."

Third, Christmas shows God's extensive love(Vv. 9,14). Although God's inclusive love rules out favoritism and discrimination, and God's transforming love features both giving and taking, God's extensive love transcends all kinds of boundaries and territories. God sent his Son to the whole world, not just a part of it(Vv. 9,14). God's love is universal in scope, and there is no geographic or ethnic limit to it(Vv. 9,14). The universal spread of sin requires a universal solution that is God's extensive love. People anywhere can avail of God's love. Christmas guarantees that no one in this world will be left out from divine love. Jesus took the human form, died at Calvary, and rose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to

귀국 선교사들의 이주민 선교로의 전환을 돕는 MMTS4P-3기를 모집합니다.
필드 선교사님들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귀국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에 위디국제선교회는 국내 이주민 선교로의 전환을 돕고자 MMTS4P를 통해 귀국 선교사님들께 이주민 선교사역에 대한 이해와 방법을 제시합니다.
MMTS4P는 Prayer, Pre-Mission, Prizm, Peg 등 4가지 영역에서 10주 동안의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서
로잔디아스포라 GDN과 NextMove, iCDM, KWMA, KIMA 그리고 주안대학원대학교에서 파트너십으로 함께 합니다.

MMTS4P

이주민 신학 / 정부의 이주민 정책 / 단일 문화권에서의 타문화 사역
이주민이 말하는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 / 이주민 확대와 화해사역 등
이외에도 귀국선교사로서 국내에서 이주민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현장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관심영역 사역단체를 탐방하고 수료에 즈음하여 개인별 맞춤형 연구 발표로
실체적인 사역에 도전을 줄 것입니다.

2023년 2월 5일~4월 9일
(10주간, 매 주일 저녁 7시)

장 소 : ZOOM 온라인
훈련비 : 10만원 (위디선교회 하나은행 464-910007-22804)
문 의 : 임진숙선교사 010-7590-0691
등록링크 : <https://forms.gle/Q91oqKeosC1HrGbY8>

주관 : 위디국제선교회

협력기관 : GDN NEXTMOVE iCDM 주안대학원대학교
디아스포라신문 위한국제선교회 KIMA



make it possible for people everywhere to have access to divine love. Any idea of God's love monopolized by one particular ethnicity or people group is not biblical.

Evidently, God's love also has a cosmic effect(Vv. 15-16, 19-21). The reach of divine love transcends space and geography, as it penetrates every heart, every soul, anywhere on earth. John declares, "If anyone acknowledges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God lives in him and he in God"(v. 15). The identity of "anyone" here is open across the globe. People can experience divine love anywhere, any time, and any place(v. 16). The cultural face of "whoever" here translates to you and me, parents, officemates, friends, children, relatives, or any individual. God's extensive love transcends all types of boundaries. Any person in diaspora or an individual living in one's homeland can identify with the face of "whoever." The essence and scope of God's love is beautifully illustrated by the story I read in a Bible Commentary many years ago.

During World War II, a group of American soldiers was assigned in Germany. In one battle zone, the German army showed strong resistance. An American soldier was hit in the head and died on the spot. Two of his buddies were

tasked by the platoon leader to look for a cemetery where the fallen soldier's body could be buried, with the hope of retrieving the remains after the war. With the dead on their shoulders, the two soldiers walked for miles under heavy rain until reaching a cemetery owned by a Catholic church. Knowing that their fallen soldier was a Protestant, they found themselves pleading with the Catholic priest on behalf of

started digging. Rain was pouring hard and the night was getting late; however, the two soldiers managed to dig a shallow grave, said simple prayers, then buried their fallen buddy. Before leaving, they put a wooden cross on top of the grave as a marker.

After the war, the parents of the fallen soldier decided to bring home the remains of their son from Ger-

check with the parish priest. "Do you remember the night when two American soldiers came to bury our fallen friend?" The veterans asked the priest. "You refused to bury him inside the cemetery, so we laid the corpse just outside the fence and put a wooden cross as a marker.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the grave?" The friends anxiously asked. The old priest took a long pause, his eyes staring at the woods that covered the cemetery. "You'll not find the grave there," his voice cracking. "Pardon?" the parents retorted in disbelief. "What happened to our son's tomb? they pressed on. Teary-eyed, the priest confessed, "When the soldiers left that night, I went to the cemetery and discovered the grave was positioned outside the fence. I was touched by what I saw, so I moved the fence and extended it to the graveyard of the fallen soldier."

When Christ came, God moved the fence of his love to include every single person in the world who needs divine forgiveness regardless of one's circumstance or residence. I cannot fully measure the depth of God's inclusive love. You may not fully comprehend the power of God's transformative love. We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essence of God's extensive love. But, at Christmas, everyone can experience the wonders and power of God's love.



the dead, but to no avail. The priest simply said with an emotional tone, "I'm sorry, soldiers. The cemetery is strictly for Catholics only. No place for Protestants here." Failing to persuade the priest, the two soldiers took the fallen soldier's body outside the cemetery but only a few inches away from the fence. The soil was soaked and sticky, but they

many. They asked assistance from the two soldiers who took care of the body. Not much change took place in the town where the soldiers remembered burying their mate. When they arrived at the Catholic cemetery, the two friends struggled to look for the grave where their buddy was buried. They could not find the tomb. They decided to



법무법인 디라이트

전문성과 혁신으로 산업의 Frontier에서 고객을 도우며 사회변화를 위하여 Shared Value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과 사업 전반에 걸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글로벌한 업무 능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으로 고객이 새로운 성장과 혁신에 필요한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5층(서초2동, 한화생명보험빌딩)
TEL 02.2051.1870 FAX 02.2051.1877 E-MAIL info@dightlaw.com
www.dightlaw.com

산업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송과 자문 영역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기업들이 어디에서나 경쟁력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ICT/AI | 헬스케어 | 블록체인 | 핀테크 | 엔터테인먼트 | 모빌리티 | 이커머스 | 에너지/환경 | 농업/F&B

법률분야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기업들이 마주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며,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법무, Technology M&A | 지적재산권 | 인사·형사·행정 등 각종소송 | 스타트업 / VC | 개인정보/빅데이터 | 부동산/건설 | 규제샌드박스 | 중국 | 사내법무지원 서비스

공익활동 공익(사회적기여)은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문화이자 목표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은 공익활동을 업무의 일부로 하며,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공익활동에서 사용함으로써 사회 변화를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기술 / 디자인공모전(D-Tech) | 파트너기업과 함께하는 Time Bank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법·제도개선 지원사업 | 1% for the Planet(환경) | 각종 공익·인권 소송

[성탄특집]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8-9면을 네팔어로 번역·요약하여 게재합니다.

आपूवासीहरूको लागि प्रेम

संसारभरका लाखौं मानसिहरूले आफ्ना प्रियजनहरू र गृहनगरहरूबाट टाढा रहेर क्रिसमस मनाउँछन्। ईसाईहरूको लागि, क्रिसमस आफन्त र साथीहरू बीच अर्थपूर्ण पुनर्मिलनको समय हो, त्यसैले दूरी र अलगावको विचार डरलाग्दो हुन सक्छ। त्यसोभए, के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ले मानसिहरूलाई प्रवासमा रहदा असर गर्छ? डायस्पोराको सन्दर्भमा, प्रवासीहरूले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उनीहरूलाई उनीहरूको लागि पनि सान्दर्भिक छ कि भनेर सोच्न सक्छन्। यी चिन्ताहरूको जवाफमा, 1 यूहन्ना 4:7-21 ले घोषणा गर्दछ कि क्रिसमसको सार ईश्वरीय प्रेम हो। सटीक हुनको लागि स्पष्ट रूपमा, क्रिसमस समावेशी, परिवर्तनकारी, परमेश्वरको दूरगामी प्रेम हो।

पहिलो, क्रिसमसले परमेश्वरको समावेशी प्रेमलाई प्रतिनिधित्व गर्दछ। यदिकसैले भन्छ, "मलाई कसैले प्रेम गर्दैन," त्यो व्यक्तिले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सबैलाई पुग्ने हो भन्ने कुरा कहिल्यै नसुनेको हुन सक्छ। बुबा, आमा, दाजुभाइ, दिदीबहिनी, छोराछोरी, नातेदार, साथी, सहकर्मी र छिमेकीहरू लगायत सबै मानसिहरूमा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लागू हुन्छ। परमेश्वरको सर्वव्यापी प्रेमले कुनै पनि पक्षपातलाई समावेश गर्दैन। "हामी माझ" ले सबै मानसिहरूलाई बुझाउँछ, कसैलाई पनि छोडिएको छैन। पद ९ मा व्यक्त गरिएझैं,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ले 'संसार' वाक्यांश मार्फत सबै मानसिहरूलाई समावेश गर्दछ। इमानुएल (परमेश्वर हामीसँग) को रूपमा, येशू एक विशेष जातीय समूहको लागि मात्र होइन, तर अनन्त जीवन चाहिने सबैको लागि आउनुभयो।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को समावेशीताले भेदभावलाई समावेश गर्दैन। कतिपय मानसिहरू प्रेमलाई आफैमा राख्ने प्रयास

गर्छन्। तनीहरू डराउँछन् कि साथीहरू र अरूले तनीहरूलाई धोका दिनेछन्, त्यसैले तनीहरू मानसिहरूलाई माया गर्ने प्रयास गर्दैनन्। अरूलाई माया दिने बारे रोजनुहोस्। तनीहरू प्रायः उनीहरूलाई मात्र माया गर्ने छनौट गर्छन् जसले उनीहरूलाई व्यवसायमा मदद गर्न सक्छ वा उनीहरूलाई स्कूल वा काममा राम्रो स्थान पाउन मदद गर्दछ। यसको विपरीत,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म मा कहिल्यै छनौट वा भेदभावपूर्ण हुँदैन। खरीष्टमा र खरीष्टद्वारा बाँच्नको लागि हाम्रो आवश्यकताको कारणले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लाई प्रेम गर्नुहुन्छ। हाम्रो पारिवारिक पृष्ठभूमि, शैक्षिक उपलब्धि, रोजगारी, रंग, आर्थिक हैसियत वा समाजमा स्थिति जस्तोसुकै भए तापनि अनन्त जीवनको लागि हाम्रो आवश्यकता हामी सबैको लागि आवश्यक छ। हाम्रो आध्यात्मिक सुख्खा पनमा पनि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लाई प्रेम गर्नुहुन्छ।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लाई हामी जस्तै माया गर्नुहुन्छ, पापीहरूलाई क्षमा चाहन्छ।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धेरै टाढा फैलिएको छ। स्वर्गीय पिताद्वारा देखाइएको कलवरीको क्रुसले संसारका सबै पापीहरूलाई अँगालो हाल्छ, जो दुष्टका छालहरूबाट बगाइएका छन्।

दोस्रो, क्रिसमसले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वर्तनकारी प्रेमलाई प्रकट गर्दछ। परिवर्तन तब हुन्छ जब एक व्यक्तिले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अनुभव गर्दछ।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ले जीवन परिवर्तन गर्दछ।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ले मानसिजातलाई थाहा भएको सबै प्रकारको प्रेमलाई हटाउँछ।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यस्तो प्रेम हो जसले आफ्नो पुत्रलाई समेत त्यागछ (यूहन्ना ३:१६)। येशू खरीष्टले हाम्रो लागि आफ्नो जीवन दिएर हामीलाई प्रेम के हो भनेर देखाउनुभयो।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संसारको मुक्तिदाताले आफैलाई बलिदान गर्ने प्रेमको रूपमा व्यक्त गरिएको छ।

केही मानसिहरूले खरीष्टको मृत्युलाई उहाँको मसिनमा येशूको असफलताको रूपमा गलत तरिकाले बुझेका छन्। तर क्रुसले परमेश्वरको आत्म-बलिदानलाई सबैभन्दा सुन्दर रूपमा देखाउँछ। खरीष्ट हाम्रो लागि पठाइएको थियो। "यहाँ प्रेम छ; हामीले परमेश्वरलाई प्रेम गरेको होइन, तर परमेश्वरले हामीलाई प्रेम गर्नुभयो र हाम्रा पापहरूको प्रायश्चित्तको रूपमा आफ्नो पुत्र पठाउनुभयो" (पद १०)। हामी अब परमेश्वरलाई प्रेम गर्न सक्छौं कि भनेर परमेश्वरले आफ्नो पुत्रलाई पहिले हामीलाई प्रेम गर्न पठाउनुभयो।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द्वारा पापको क्षमा एक बहुमूल्य उपहार हो। येशू "हाम्रा पापहरूको प्रायश्चित्तको बलिदान" हुनुभयो। बपतिस्मा दिने यूहन्नाले "हेर, संसारको पाप लैजानुहुने परमेश्वरको थुमा" (यूहन्ना १:२९) घोषणा गरेर जनसमुदायमा येशूलाई परिचय गराउनुभयो। स्पष्ट रूपमा, क्रिसमसको साथसाथै ग्रहण गर्नुपर्छ। हाम्रा पापहरू हटाउनको लागि परमेश्वरले येशूलाई जन्म दिन अनुमति दिनुभयो।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को माध्यमबाट क्षमाले हाम्रो हृदयमा बलियो विश्वास जगाउँछ: "प्रेममा कुनै डर हुँदैन, तर सिद्ध प्रेमले डरलाई हटाउँछ" (पद १८)। मृत्युसँग डराउने र न्यायको सामना गर्ने जो कोहीलाई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चाहिन्छ।

तेस्रो, क्रिसमसले परमेश्वरको दूरगामी प्रेम देखाउँछ। परमेश्वरको समावेशी प्रेमले पक्षपात र भेदभावलाई समावेश गर्दैन, र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वर्तनकारी प्रेमले दिने र लिन दुवैको विशेषता हो, तर परमेश्वरको विशाल प्रेमले सबै सीमाहरू र क्षेत्रहरू पार गर्दछ। परमेश्वरले आफ्नो पुत्रलाई एउटा राष्ट्रमा मात्र होइन तर संसारका सबै राष्ट्रहरूमा पठाउनुभयो।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दायरामा विश्वव्यापी छ र यसको कुनै भौगोलिक वा राष्ट्रिय सीमा छैन (पद ९,

१४)। पापको विश्वव्यापी फैलावटलाई विश्वव्यापी समाधान चाहिन्छ, परमेश्वरको दूरगामी प्रेम। सबै ठाउँमा मानसिहरूले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अनुभव गर्न सक्छन्। क्रिसमसले संसारमा कोही पनि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बाट टाढा हुने छैन भन्ने ग्यारेन्टी दिन्छ। येशूले मानव रूप लनुभयो, कलभरीको क्रुसमा मर्नुभयो, र तेस्रो दिनमा मृत्युबाट बौरी उठ्नुभयो, ताकि सबै ठाउँमा मानसिहरूले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मा पहुँच गर्न सक्न्।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एक विशेष व्यक्तिलाई समूहको लागि मात्र होइन।

स्पष्ट रूपमा,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को ब्रह्माण्डीय प्रभाव छ (पद १५-१६, १९-२१)।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ले स्थान र समयलाई पार गर्दछ। यो हरेक हृदय, हरेक आत्मा, पृथ्वीमा कहीं पनि छ। यूहन्नाले घोषणा गरे, "जसले येशू परमेश्वरका पुत्र हुनुहुन्छ भनी स्वीकार गर्छ, परमेश्वर उसमा रहनुहुन्छ, र ऊ परमेश्वरमा रहनुहुन्छ" (पद १५)। यहाँ "कोही" को पहिचान विश्वव्यापी रूपमा खुला छ। मानसिहरूले जुनसुकै बेला, जहाँ पनि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 अनुभव गर्न सक्छन्। यहाँ "जो कोही" को सांस्कृतिक अनुहार तपाईं र म, आमाबाबु, सहकर्मी, साथीहरू, बच्चाहरू, नातेदारहरू, वा कुनै पनि व्यक्तिको रूपमा अनुवाद गर्न सकिन्छ। परमेश्वरको विशाल प्रेमले सबै प्रकारका सीमाहरूलाई पार गर्दछ। तपाईं डायस्पोरामा बस्ने वा आफ्नो देशमा बस्ने जो कोहीसँग पनि पहिचान गर्न सक्नुहुन्छ।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को प्रकृति दायरालाई निम्न कथामा सुन्दर ढंगले वर्णन गर्न सकिन्छ।

दोस्रो विश्वयुद्धको दौरान अमेरिकी सैनिकहरूको एउटा समूह जर्मनीमा तैनाथ गरिएको थियो। एक युद्ध क्षेत्रमा जर्मनहरूले कडा प्रतिरोध गरे। एक अमेरिकी सैनिकको टाउकोमा चोट लागेर घटनास्थलमै मृत्यु भएको थियो।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산소망교회

이주민선교 온가족예배

유관기관 위디국제선교회, (사)피드더칠드런 한국위원회
명학마을 작은도시관, 보아스의발

산소망교회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www.sansomang.org
031-468-9191

उनका दुई जना साथीहरूलाई पलटुन नेताले एउटा चहिन खोज्ने जमिमा दिए जहाँ मृतकहरूलाई गाड्न सकिन्छ ताकियुद्ध पछि अवशेषहरू बरामद गर्न सकियोस्। दुई सपिाहीहरूले मृतकलाई आफ्नो काँधमा बोके र भारी वर्षामा कैथोलिक चर्चको स्वामित्वमा रहेको चहिनमा धेरै माइल हिँडे। यद्यपि, पतति सपिाही प्रोटेस्टेन्ट भएको थाहा पाएर, क्याथोलिक पादरीले भावनात्मक स्वरमा यसो भन्दै अस्वीकार गरे, "माफ गर्नुहोस्, सपिाहीहरू कब्रिस्तान क्याथोलिकहरूका लागि मात्र हो। यहाँ प्रोटेस्टेन्टहरूको लागि कुनै ठाउँ छैन।" क्याथोलिक पादरीलाई मनाउन असफल भएपछि, दुई सपिाहीहरूले एक लडेका सपिाहीको शव चहिनबाहिरको

बारबाट केही इन्च टाढा लगे। उनीहरू खन्न थाले। धेरै पानी पर्यो र राती अबेर भयो, तर दुई सपिाहीहरूले एउटा उथले चहिन खन्न सफल भए र, साधारण प्रार्थना गरेपछि, आफ्नो साथीलाई गाडेर जानु अघि, तनीहरूले चर्चको रूपमा चहिनमाथि काठको क्रस राखे।

युद्ध पछि, पतति सपिाहीका आमाबाबुले जर्मनीबाट आफ्नो छोराको अवशेष घर ल्याउने नरिणय गरे। त्यतिबेला उनले शव गाड्ने दुई सपिाहीलाई सहयोगको लागि बोलाए। जब तनीहरू क्याथोलिक चहिनमा आइपुगछन्, दुई साथीहरूले आफ्नो साथीको चहिन फेला पार्न सक्दो प्रयास गर्छन्। तनीहरूले चहिन भेटेताउन सकेनन्।

तनीहरूले क्याथोलिक पादरीसँग जाँच गर्ने नरिणय गरे। "हामी हाम्रो साथीलाई गाड्न आएको रात याद छ?" सेवानवृत्त सैनिकहरूले क्याथोलिक पादरीलाई सोधे। "तपाईंले उसलाई चहिनभित्र गाड्न अस्वीकार गर्नुभयो, त्यसैले हामीले लाशलाई बारबाहिर राख्यौं र मार्करको रूपमा काठको क्रस राख्यौं। के तपाईंलाई थाहा छ चहिनमा के भयो?" साथीहरूले आत्तासम्म सोधे वृद्ध क्याथोलिक पादरीले चहिनलाई ढाकिएको जङ्गललाई हेरेर एक क्षणको लागि रोके। आफ्नो आँखामा आँसु लिएर, क्याथोलिक पादरीले भने, "त्यस रात मैले देखेको कुराले म यतिप्रभावित भएँ कि मैले क्याथोलिक चहिनको बार लम्बाइदिएँ ताकि गाडिएको सपिाहीको

चहिन बार भित्र छ।"

जब खरीष्ट आउनुभयो, परमेश्वरले आफ्नो प्रेमको बाडलाई संसारका सबै मानसिहरूलाई समावेश गर्न सामेल गर्नुभयो जसलाई परमेश्वरको क्षमा चाहन्छ, तनीहरूको परिस्थिति वा जहाँ बस्छन्। हामी परमेश्वरको समावेशी प्रेमको गहराइलाई पूर्ण रूपमा बुझ्न सक्दैनौं। तपाईंले परमेश्वरको रूपान्तरण गर्ने प्रेमको शक्तिलाई पूर्णतया बुझ्नुभएको छैन। हामीले परमेश्वरको दूरगामी प्रेमको प्रकृतिलाई पूर्णतया बुझ्न सक्दैनौं। तर क्रिसमसमा, सबैले परमेश्वरको प्रेमको आश्चर्य र शक्तिको अनुभव गर्न सक्छन्।

번역도움 피터 김 선교사

योना의 민족주의와 하나님의 보편주의



평택대학교 구약학 교수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장

글

유윤종 교수

한 민족이 한 국가를 이룬다는 근대 국민국가의 개념과는 달리, 20세기에 이르러서는 양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강대국의 편익에 따라 국가의 영토가 그어지는 일이 빈번했다. 그 결과 한 국가 안에 내재한 인종, 민족, 부족 등의 갈등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 요인들이 얹혀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세계화는 신자유주의라는 시대정신의 산물로써,

코로나19 이전까지 지구촌에 수많은 이주민을 양산해왔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서로 간의 담을 허물어오던 흐름에서 다시 국가 간의 관계를 재편하며, 각자의 이익에서 어느 나라와 담을 쌓고 허물 것인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요나는 앗시리아의 제국주의적 행패에 매우 큰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서 앗시리아를 심판해야 한다고 믿었다. 요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유다의 하나님이며, 제국주의자 앗시리아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요나는 골수 유다 민족주의자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앗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 하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선포해야 하는 것이 예언자의 임무였고, 명령의 거부예언자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요나는 자신의 소신이 너무나 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위하여 니느웨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다시 소명을 받고 수용한다. 요나는 니느웨에서 불성실하게 선포했지만, 요나의 바램과는 달리 니느웨에서 큰 회개가 일어났다. 그것이 못마땅했던 요나는 죽으려 하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항의한다. 이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음의 질문을 하시면서 요나서는 끝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욥 4:11)

피해국인 유다의 민족주의자 요나가 느낀 분노를 탓할 수는 없다. 제국주의 행패의 희생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는 요나의 분노에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그 분노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속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속성은 사람과 가축까지 '아끼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그 속성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것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를 가리지 않으며, 민족이나 인종을 가리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속성은 아들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의 마구간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주민 사역의 근본정신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를 향한 하나님의 '아끼는 마음'이다.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 담을 쌓으려는 그 시도를 꺾을 수 있을 것이다.



Withee Labor Consulting

위디노무사사무소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508 신산빌딩 210호

대표노무사 : 이재호

Mission Statement

전도서 3:22-4:1의 말씀을 기초로

- 1)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
- 2) 불의한 권세로부터 학대받는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준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 보았도다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3:22~4:1)

사업(BAM)영역

1. 개별 사건수행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내괴롭힘 등
2. 기업 컨설팅 및 자문 : 임금·인사노무 시스템, 급여 및 4대보험 아웃소싱 등
3. 공익사업 : 국선노무사(부당해고, 체당금),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코칭 등
4. 사회공헌활동 : 청소년근로조건 보호위원, (예비)사회적기업 멘토링 등
5. 법정 의무 교육 :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6. 선교단체 & NGO 컨설팅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이재호 목사(노무사) 소개영상]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 (2)



한인디아스포라연구소 소장
유럽난민학습 공동체 대표

글

김성훈 선교사

디아스포라신문은 매일 김성훈 선교사의 저서 <마지막 시대의 모략: 디아스포라> 본문 일부를 발췌하여 게재한다. 이번 호는 지난 호에 이어 본서 2장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의 최근 흐름'에서 소개된 디아스포라 현상과 관련한 학자들의 신학적 견해를 요약하였다.

에녹 완(Enoch Wan)의 '디아스포라' 선교학과 조이 티라(Joy Tira)의 선교 신학적 프레임

완은 '디아스포라 선교학(Diaspora Missiology)'이 디아스포라를 현상적으로 접근하고 신학적으로 고찰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하고자 하는 조직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라고 정의한다. 그는 신구약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현상 속에서 흠여짐과 모임의 패턴을 발견하여 도표로 만들어 제시하였다. 그는 전통 선교학과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표] 전통 선교학(Traditional missiology)과 디아스포라 선교학(Diaspora missiology) 비교

구분	전통 선교학	↔	디아스포라 선교학
1	초점		
	양극화/이분법적이다 - 대위임령(선교명령) ↔ 대계명(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 영혼 구원 ↔ 사회 복음 - 교회개혁 ↔ 기독교 자선 - 후견(온정)주의 ↔ 현지 도착화		- 복음 전파와 사회 구제의 통합적 사고를 가진 총체적 기독교를 추구 - 현지에 적절한 상황화 추구
2	개념화		
	- 지역적 개념: 여기 ↔ 저기 - 지역적 ↔ 세계 구분 - 단선적 사고: 보내는 곳 ↔ 받는 곳 - 동화됨(Assimilation) ↔ 융합 혹은 혼합(Amalgamation) - 선교의 고유성(Specialization)		- 탈 지역화 추구 (사회문화적 경계의 상실) - '글로벌(Glocal)' 개념 추구 - 상호성과 상호 호혜성 추구 - 혼종화(Hybridization) - 학제 간 교류성을 지님 (Inter-disciplinary)
3	관점		
	- 지리적으로 구분됨: 해외선교와 지역 도시선교 그리고 변두리 - 지정학적 경계: 국가/민족 ↔ 국가/민족 - 신학, 선교학 등 철저하게 구분된 학제 추구 - 선교/선교전략 추구		- 제한된 공간을 초월 - 국경 없는 사역, 초국가적 세계화 경향을 추구 - 새로운 접근 관점: 통합적 관점, 학제 간 교류의 중요성 대두
4	패러다임		
	- 구약: 선교는 이방인의 구속으로 구심적 선교방법 - 신약: 선교는 대위임령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가는 원심적 선교방법 - 현재 선교: E-1, E-2, E-3 혹은 M-1, M-2, M-3 등		- 21세기 선교는 공간적·영적으로 예비된 자들의 이동을 포착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패러다임 필요 - 선교대상이 이동함으로써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방법론은 다양한 교차 학문의 영역을 커버하며, 문화인류학·인구통계학·경제·지리·역사·법률·정치·사회학 등의 주요영역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연구주제로써 이민 △종족 갈등(ethnic conflict) △디아스포라 현상 연구 △세계화 △도시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등의 영역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완의 연구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학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이에 티라는 그의 논문에서 필리핀 신학자 루이스 판토자 주니어(Luis Pantoja Jr.)의 주장과 테레소 카지노(Tereso Casino)의 '글로벌 디아스포라' 신학연구 발제문, 그리고 로잔 위원회에서 정리한 '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신학적 조명과 세계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참조하였다. 티라는 결론적으로 모든 디아스포라 현상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파악하고 디아스포라 신학의 중심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주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창조주이자 인간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인간 역사의 주권자로서 인간의 이동에 간섭하신다(행 17:26~27). 예수님은 지상의 삶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몸소 보이시고, 흠여진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목적 있는 이민(디아스포라)'의 신학적 모델로써 대단히 중요하다. 창조의 역사 속에도 참여하신 성령님은 선교의 시행자로서 이스라엘의 형성과 교회 생성에 관여하시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구속계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신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와 지

상명령의 완수를 이루시고자 흠여지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마 28:20).

둘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적 사명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암시되어 있는 '교회의 유동적 본성(mobility instinct)'은 선교적 목적과 결합되어 모든 경계를 넘는다. 즉 우주적 교회는 모든 시대와 공간의 지역 교회의 경계를 넘는다(요 17:11~21).

셋째는 종말에 흠여진 자들의 연합(종말론, Eschatology)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이미 현재에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에서는 '목적을 가진 순례자'로서 증인의 삶을 산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흠여진 모든 민족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된다(계 7:9~10).

넷째는 우주적 갈등과 영적 전쟁이다. 사도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주적 갈등과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말한다(엡 6:12).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흠여질 때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주셨다(눅 9:1~2).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와 선교적 의미: 제후 한실(Jehu Hanciles)의 견해

한실은 이민과 종교의 확장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며, 현재의 이민 형태가 향후 종교 활동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진단한다. 사무엘 에스코바(Samuel Escobar)는 "오늘날 이민의 모델은 미래 기독교 선교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선교계의 제도적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서)



10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말씀대로 / 기도대로 / 사명대로 이루어지는 살롬교회!!

- 세상의 소금이 되는 쓰임받는 교회
- 거룩하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
-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하는 교회
-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순복음살롬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시랑북로2길 11 / 031-410-9420
담임목사 이재순 / 부목사 조사무엘
전도사 이미영, 이길순 / 캄보디아선교사 이창우, 김여정
유관기관 : 나눔무료식당, GGVS기독교학교

주일에배 1부 8:30 / 2부 11:00 / 3부 14:00 / 수요일배 19:30 / 목요일복성회 20:30 / 새벽기도회 월~목 05:00
실로아예배(유년부, 초등부) 주일 11:00 / 아가페학생회 토요일 12:00 / 청년부 토요일 18:00

그는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의 선교의 확장을 연구하였으며, 당시 유럽 인구와 비서구 노동력의 대규모 이주라는 큰 물결 속에 선교의 흐름이 편승되어 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물결은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민(global migration)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는 식민주의가 국가 간 이동 구조(transnational structure 혹은 interstate system)를 구축하여 글로벌 이민 시대를 촉진하고, 더불어 유럽 제국주의의 해체가 비서구의 해방된 인력이 대거 이동하는 현상을 불러 일으켰다고 보았다.

한실은 이런 디아스포라 현상(특히 아프리카)이 주는 선교적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였

다. 첫째로, 유럽 이슬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대응세력은 세속화나 유럽의 기독교가 아니라, 아프리카·남미·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기독교 이민자들이다. 무슬림이 접촉하게 되는 가장 생동감 있는 기독교의 형태는 비서구 이민자들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의 역동적인 성장의 중심에서 나온 기독교 이민자들과 그들의 자녀는 대단히 복음적인 모습을 띤다. 많은 이민자들은 지역사회에 적응해 나가면서 기독교가 그곳에서 위세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를 '선교사'라고 생각하게 된다.

셋째, 일반적으로 이민은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지기 쉬운 경향이 있으나, 종교의식이나 종교적 헌신을 더 강화하

거나 심지어는 개종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민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개종현상은 이를 충분히 증명한다. 넷째, 아프리카 독립교회들(AICs)은 다른 기독교 이민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민 국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주변인으로 취급되며, 대부분 도시의 빈민지역에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배적인 문화 속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아프리카 독립교회들은 지역 교인에 의해 방치된 틈새를 섬기고 있다.

다섯째, 새로 이민 온 회중들은 서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 다양성에 익숙하다.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이민은 서구사회의 얼굴을 바꾸고 전무후무한 문화적 다양성을 촉발했다. 특히 종교적 다양성은 서구인에

게 매우 낮은 경험이기에 서구교회가 이런 도전을 잘 인식하지 못한 반면, 기독교 이민자들은 타종교와의 교감 속에서 신앙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종교 다원주의 상황에서 적응력을 가진 기독교 이민자들은 선교에 있어서도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여섯째, 세계화의 힘(특히 transnationalism)은 기독교 이민자들이 서구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헌신하도록 선교적 역량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서구사회의 도시 중심으로 교회활동을 하며 이동성, 역동성, 변화의 측면에서 가장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 예컨대 미국의 아프리카 이민 목회자들은 글로벌 사역의 방향성과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연재)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외면당한 성탄

Cedar Tree Ministries
(캐나다장로교단)
Executive Director,
Grace Native Mission 대표,
Cowichan Grace Church
담임목사



글

조용완 선교사

카위찬원주민교회를 나와서 집에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야 한다. 그러려면 반드시 간선도로 좌회전 차선에서 멈춰야 하는데, 그곳에서 보이는 큰 신호등 밑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구걸하는 글귀를 적은 박스 쪼가리를 들고 언제나 서 있다. 그 모습을 쳐다보지 않으려 애를 쓰다 보면 신호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이 항상 민망하게 흘러간다.

이 땅에 처음 성탄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도 그렇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요 1:10~11)

세상은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심지어 신호등 앞에 서 있는 분을 마치 봐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대하듯이, 우리는 주님께에서 얼굴을 가렸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사 53:3)

그렇게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당신처럼 외면당한 자들을 찾아다니셨다. 그들 가운데는 "지옥의 뿔감"이라고 여겨진 이방인도 있었고, 문둥병이 걸려 마을에서 외롭게 쫓겨난 자들도 있었다. 심지어 돈만 밝힌던 매국노 세리 삭개오 같이 인성에 문제가 있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간절히 찾던 사람들은 그 누구 하나 거절하지 않으셨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계속하여 찾아 다니셨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한 나와 같은 자를 찾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은 왜 그토록 간절히 나와 같은 죄인들을 찾아 다니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멸망 당할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벌에 처할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이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은 나를 찾으셨고, 또한 나를 보내셨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20:21)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외면당한 자들을 찾아내어 복음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외면당하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며 성탄을 축하할 이유이다.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Jewish Voice Ministries International, Korea

우리는 예수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지만, JvMI Korea는 특히 에티오피아와 짐바브웨를 주목합니다. 복음을 담아 구제하며 기동성이 빠른 이동클리닉을 통해 치과, 안과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육체적 필요를 지원하며 예수의 사랑과 소망을 나눕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www.jvmikorea.org

서울권역

나섬교회(나섬공동체)

서울시 광진구 광장로1

T 02-446-4195**H** www.nasom.or.kr

영어권예배 주일 오후 2:00

서남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이슬람권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권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권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권예배 주일 오후 2:00

남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19길 36 (반포동)

T 02-2023-5600**H** www.namseoul.org

북한민예배 주일 오전 10:4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노동자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26-1

T 070-8222-8345**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높은뜻광성교회

서울시 마포구 신수로 56 순총빌딩 5층(사무국)

T 02-717-5025**H** www.gwks.org

다문화가정예배 주일 오전 11:00

동신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44길 43(창신동)

T 02-764-1181-4**H** www.dongshin.or.kr

몽골인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이란인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인예배 주일 오후 1:30

동일교회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35길 21

T 02-2208-0811-3**H** www.dongilch.com

몽골부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부예배 주일 오후 1:30

필리핀부예배 주일 오후 1:30

새오름교회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 1길 48 미래오피스 301호

T 010-3512-6701**H**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생수가흐르는숲교회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52 2층 the cafe HEIMz

T 010-8637-0333**H**
글로벌예배(오전)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오후) 주일 오후 4:00

다문화소그룹 주일 오후 2:00

서울대 글로벌비전센터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로4 아놀노타워 B1

T 010-2875-9639**H**
글로벌예배 주일 오전 11:00
글로벌예배 주일 오후 2:00
세종한국어교실 주중

서울네이션즈교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17번지 3층

T 02-793-0193**H** www.gfm153.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오륜교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대로 235

T 02-485-4004**H** www.or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벵갈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다하나국제교회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88-39

T 02-2269-0654**H**
다하나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토요일 오후 6: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ISF(국제학생회)

서울 성동구 무학로2길 10길 6층

T 02-2051-7040**H** www.isfkorea.orgsangdang.org

수도권역

분당매일교회 살롬하우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보로 107번길 티엘산업

T 010-3951-8680**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3:30

새중앙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301

T 031-425-3000**H** www.sja.or.kr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어린이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0:30

인도네시아예배 주일 오전 10:30

북한선교예배 주일 오전 10:30

중국동포예배 주일 오전 10:30

몽골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 주일 오전 10:30

수원중앙침례교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08

T 031-229-9000**H** www.central.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1:30
새터민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순복음열방선교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412 2층

T 032-874-8291**H**
다문화통합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30
다문화주일학교 주일 오후 1:00

승리다문화교회(승리교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송산로 486-30

T 031-911-2289**H** www.slmcc.or.kr
일요일예배(성인) 주일 오전 11:50
다문화교회학교예배 주일 오전 11:50
캄보디아공동체 주일 오전 11:00
베트남공동체 주일 오후 2:00
다문화가정공동체 주일 오후 2:00
몽골공동체 주일 오후 2:00

시흥네팔은혜교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96-7 401호

T 010-9463-5857**H**
주일예배 주일 오후 12:00

아시아인마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185 한양빌딩 1층

T 031-753-0688**H** www.ainma.org

대예배 주일 오전 11:00

아침 특별기도회 주일 오전 10:00

안디옥인도네시아선교회(안산지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213-1 4층

T 031-492-2645**H** www.aicindonesia.co.kr/

인도네시아인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수요일 저녁 8:00

토요일예배 토요일 저녁 8:00

안산동산교회(WM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27(WM센터)

T 031-400-1111**H** www.d21.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주일학교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 예배

※ 이주민예배 안내는 현재 서울권, 수도권(인천/경기), 충청권(대전/세종), 경상권(대구/울산/부산), 전라권(광주) 다섯 권역으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송우벗사랑베트남교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솔모루로 92 안경박사 3층

T 070-4416-5830**H** www.kvim.hompee.com

러시아권예배 주일 오후 1:3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5:00

안산제일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T 031-485-0955**H** www.ansan1.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안양제일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T 031-449-1195**H** www.anyangjeil.org

영어통역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암미선교회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36번길 24

T 031-571-6554**H**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토요기도회 토요일 오후 7:00

열린교회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39번길 31

T 1661-4372**H** www.yullin.org

중국팀예배 주일 오전 11:30

열린열방선교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건건1길 31

T 031-506-6044**H**
스리랑카인예배 주일 오후 1:00
태국인예배 주일 오후 2:00

예수향남교회

경기 화성시 향남읍 서봉로 117

T 031-354-9221**H** www.jesushn.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예승센터

경기도 화성시 남양시정로 38-4 무지개아파트 505호

T 010-5541-4891**H**
네팔어예배주일 오전 10:30
네팔어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기도회 토요일 오후 9:00

새생명태국인교회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남로 115 지하1층

T 070-7019-7792**H**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위대국제선교회

경기 안양시 만안구 명화로 66-16

T 031-385-4680**H** www.withee.org

카메룬예배 주일 오후 4:00

중보기도회 토요일 오전 10:00

울프렌즈교회

경기도 광주시 수하길11번길 2

T 031-762-2679**H** www.allfriends.kr

캄보디아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8:00

캄보디아주일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9:00

다문화토요일예배 토요일 오후 1:00

이주민월드비전센터

경기 동두천시 생연로 200

T 010-3198-9329**H**
네팔예배 주일 오전 10:00
다국적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1:00
아프리카예배 주일 오후 3:00

인천순복음교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화로 458

T 032-424-8511**H** www.hyo7.com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5: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주안장로교회

부평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213(산곡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74번길 20(주안동)

T 032-527-1009**H** www.juan.ok.kr

새터민 햇빛공동체 주일 오후 12:30

베트남주안교회 주일 오전 10:00

네팔주안교회 주일 오후 12:0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후 2:30

파키스탄어예배 주일 오후 4:00

하베스트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 97-1 2층

T 010-2025-7123**H**
다민족예배 주일 오전 11:30

안내 접수

담당 이진아 기자
izina@hanmail.net

강원이나 제주 등 빠진 지역의 교회는 본지로 신청해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정규(일반)예배를 제외한 이주민 모임만 안내해드립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경의로 956

T 031-918-9100

H www.kwangsung.org

베트남예배 주일 오전 11:30

태국어예배 주일 오후 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꿈의교회

경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T 031-409-9191

H www.dream10.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광탄열방교회(네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해음로 1091 2층

T 010-9002-0033

H

네팔어주일예배 주일 오전 10:30

네팔어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8:00

네팔어금요예배 금요일 오후 8:00

순복음생명수교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64 2층

T 010-9948-8212

H

러시아어 주일예배 오전 9:00 / 11:00

러시아어 주일학교 오전 11:00

러시아어 금요기도회 오후 9:00
*(첫째 주 제외)

할렐루야교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368

T 031-780-9500

H www.hcc.or.kr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00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경상권역

김해교회

경남 김해시 가락로 117

T 055-333-6321

H www.gloria.or.kr

필리핀예배 주일 오후 2:00

대구동신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4길 39(만촌동)

T 053-756-1701

H www.ds-ch.org

성인영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20

베트남예배 주일 오후 12:00

러시아예배 주일 오후 1:00

중국어유치부 주일 오후 12:00

영어유년부 주일 오후 2:00

고현교회

경남 거제시 계룡로11길 17-7

T 055-635-5511

H www.gohyun.org

영어예배 주일 오후 1:1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대청글로벌미션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 83 동행빌딩 5층

T 051-515-0191

H www.dgmc.co.kr

중국어학생예배 주일 오후 5:00

대영교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80

T 053-756-1701

H www.daeyoung.org

캄보디아예배 주일 오전 11:15

탈북민부 주일 오후 12:30

외국인한글학교 토요일 저녁 8:00,
주일 오후 1:00

섬김의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대첩로 106(옥포동)

T 055-688-0691

H www.sumgim.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30

시타센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91 서린빌딩 5층

T 010-9747-0316

H ulinch0229.vixsite.com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10: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2:30

한국어교실 주일 오후 12:3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30

하이웃 센터(Hi-Neighbor Center)

경북 경주시 한빛길 23 3층

T 054-772-0691

H

한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00

금요모임 금요일 오후 6:30

호산나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6로 2 (명지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1405번길 26 (하단동)

T 051-209-0191

H www.hosanna21.com

인도네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2:30

일본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2:00

구미제일교회

경북 구미시 임수로 80

T 054-471-8650

H www.gumijeil.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3: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2: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3: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2:00

울산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푸름길 10

T 052-242-1171

H www.upcweb.ne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후 12:0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울산베트남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9

T 010-7493-0080

H www.vfu.co.kr

토요일예배 토 오후 7:00

주일예배 주일 오후 2:00

호남권역

갯소리성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60번길 22

T 010-3633-0864

H www.godpleasing.modoo.at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다문화예배 주일 오후 1:30

무지개다문화교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중앙로 59-10 3층

T 010-3604-8139

H

다문화예배 주일 오전 10:10 / 11:30

월광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염화로 31번길 7

T 062-375-0400

H www.wemwem.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9:30

필리핀예배 주일 오전 11:30

장동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87

T 063-211-1597

H www.jangdong.org

모자이크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 오후 2:30,

수요일 오후 7:30

전주안디옥교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665

T 063-274-3228

H www.antiochia.org

중국어예배주일 주일 오후 12:5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1:00

목포주안교회

전남 목포시 청호로 159(북항동)

T 061-272-4908

H www.mokpojuan.com

외국인예배 주일 오후 1:30

목포사랑의교회

전남 목포시 옥암동 복산길 6번길 7

T 061-284-8899

H www.ds-ch.org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7:00

네팔어예배 주일 오후 7:00

영어예배 주일 오후 3:0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7:00

충청권역

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T 043-288-2203

H www.sangdang.org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중국어예배 주일 오후 1:30

몽골어예배 주일 오후 2:00

일본예배(선교기도회) 주일 오후 1:30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9:00,

오후 12:00

신창비전외국인교회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남로 854

T 010-2287-9643

H facebook.com

/groups/1616235851794814

러시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청소년예배 주일 오후 2:00

아침기도회 월~금 오전 6: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전 10:00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30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하늘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노태산로 21(백석동)

T 041-558-9191

H www.heavencc.net

중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네팔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몽골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스리랑카어예배 주일 오전 11:00

태국어예배 주일 오전 11:00

캄보디아어예배 주일 오전 11:00

베트남어예배 주일 오후 1:00

인도어예배 주일 오전 11:30

미얀마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아프리카어예배 주일 오전 11:30

이주민예배 안내를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교회의 문의를 언제나 환영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지여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19~20)



디아스포라신문

발행·편집인 문창선 목사
안양 라00130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명학로 66-16
문의: 010-7418-0191
이메일: witheeman@gmail.com
홈페이지: www.diasporanews.kr
구독 및 광고문의를 환영합니다

[성탄특집] 국내 이주민 독자를 위해 8-9면을 우즈베크어로 번역·요약하여 게재합니다.

Xudoning muhojirlarga bo'lgan sevgisi

Dunyo bo'ylab millionlab odamlar Mavlud bayrami(Rojdestvo)ni o'z yaqinlari va ona shaharlaridan uzoqda nishonlashadi. Masihiylar uchun Mavlud bayrami (Rojdestvo) qarindoshlari va do'stlari bilan mazmunli uchrashuv vaqtidir, shuning uchun uzoqda bo'lish va o'zini yolg'iz his qilish fikri qo'rqinchli bo'lishi mumkin. Xo'sh, Xudoning sevgisi ko'chmanchi odamlarga ta'sir qilishi mumkinmi? O'zga yurtda yashayotgan muhojirlarda Xudoning sevgisi bizga ham tegishlimi, degan savol tug'ilishi mumkin. Ushbu xavotirlarga javoban, 1 Yuhanno 4:7-21-oyatlarda Mavludning mohiyati ilohiy sevgi ekanligi aytiladi. Aniqroq qilib aytadigan bo'lsak, Mavlud mohiyatan Xudoning qamrab oluvchi, o'zgartiruvchi va cheksiz sevgisidir.

Birinchidan, Mavlud bayrami Xudoning hamma narsani qamrab oluvchi sevgisini ifodalaydi. Agar kimdir "Meni hech kim sevmaydi" desa, u kishi hech qachon Xudoning sevgisi hammaga taalluqli ekanini eshitmagan bo'lishi mumkin. Xudoning sevgisi barcha odamlarga, jumladan, otalar, onalar, aka-uka, opa-singillar, bolalar, qarindoshlar, do'stlar, hamkasblar va qo'shnilarga yoyiladi. Xudoning hamma narsani qamrab oluvchi sevgisi har qanday tarafdorlikni istisno qiladi. "Oramizda" iborasi hamma odamlarga tegishli, hech kim chetda qolmagan. 9-oyatda aytilganidek, Xudoning sevgisi «dunyo» so'zi orqali barcha odamlarni o'z ichiga oladi. Immanuil (Xudo biz bilan) sifatida Iso faqat ma'lum bir etnik guruh uchun emas, balki abadiy hayotga muhtoj bo'lgan barcha uchun kelgan. Xudo sevgisining keng qamrovliligi ajratishni istisno qiladi. Xudo bizni Masihda va Masih orqali yashashga muhtojligimiz tufayli

sevadi. Abadiy hayotga bo'lgan ehtiyojimiz oilamizdan, bilimimiz darajasidan, bandligimizdan, rang-barangligimizdan, iqtisodiy ahvolimizdan yoki jamiyatdagi mavqeimizdan qat'i nazar, barchamizdan talab qilinadi. Xudo bizni hatto ruhiy inqirozlikda ham sevadi. Xudo bizni qanday bo'lsak, shundayligimizcha - kechirimga muhtoj gunohkorlar kabi sevadi. «Xudoning sevgisi barcha joyga tarqaladi. Ota tomonidan ko'rsatilgan Go'lgota xochi dunyodagi barcha gunohkorlarni, yovuzlik to'lqinlari tomonidan olib ketilganlarni qamrab oladi.

Ikkinchidan, Mavlud Xudoning o'zgartiruvchi sevgisini ochib beradi. O'zgarish inson Xudoning sevgisini his qilganda sodir bo'ladi. Xudoning sevgisi hayotni o'zgartiradi. Xudoning sevgisi insoniyatga ma'lum bo'lgan sevgining barcha shakllaridan ustun turadi. Xudoning sevgisi - bu o'z O'g'lidani voz kechishgacha bo'lgan sevgidir (Yuhanno 3:16). Iso Masih biz uchun hayotini berib, sevgi nima ekanligini ko'rsatdi. Xudoning sevgisi O'zini qurbon qilgan dunyo Qutqaruvchisining sevgisi sifatida ifodalanadi. Ba'zi odamlar Masihning o'limini Isoning O'z xizmatidagi muvaffaqiyatsizligi, deb yanglishadilar. Ammo xoch Xudoning fidoyiligini eng chiroyli tarzda ko'rsatadi. Masih biz uchun yuborilgan. "Bu sevgi bizning Xudoga bo'lgan sevgimiz emas, balki Xudoning bizga ko'rsatgan sevgisidir. Zero, Xudo bizni gunohlarimizdan poklash uchun O'z O'g'lini qurbon qildi. (10-oyat)" Endi biz Xudoni seva olamiz, chunki Xudo bizni birinchi bo'lib sevish uchun O'z O'g'lini yubordi.

Uchinchidan, Mavlud Xudoning cheksiz sevgisini ko'rsatadi. Xudoning qamrab oluvchi sevgisi tarafdorlik va ajratishni istisno qiladi, Xudoning o'zgartiruvchi

sevgisi berish va olish bilan tavsiflanadi, lekin Xudoning cheksiz sevgisi barcha chegaralar va sohalardan oshib ketadi. Xudo O'z O'g'lini faqat bir xalqqa emas, balki dunyodagi barcha xalqlarga yubordi. Xudoning sevgisi ko'lami bo'yicha universaldir va geografik yoki milliy chegaralarga ega emas (9, 14-oyatlar). Gunohning umumbashariy tarqalishi universal yechimni, Xudoning cheksiz sevgisini talab qiladi. Hamma joyda odamlar Xudoning sevgisini his qilishlari mumkin. Mavlud dunyoda hech kim Xudoning sevgisidan bebahra qolmasligini kafolatlaydi. Iso inson qiyofasini oldi, Go'lgota xochida o'ldi va uchinchi kuni o'limdan tirildi, toki hamma joyda odamlar Xudoning sevgisini his qila olsin. Xudoning sevgisi hech qachon faqat ma'lum bir xalq yoki guruh uchun emas.

Ikkinchi jahon urushi paytida bir guruh amerikalik askarlar Germaniyaga yuborilgan. Bir jang maydonida nemislar kuchli qarshilik ko'rsatdilar. Bir amerikalik askar boshiga urilgan zarba tufayli voqea joyida vafot etgan. Vzvod boshlig'i uning ikki do'stiga urushdan keyin murdalarni topish uchun o'liklarni dafn etish mumkin bo'lgan qabristonni topishni topshirdi. Ikki askar marhumni yelkalarida ko'tarib, kuchli yomg'ir ostida bir necha chaqirim yo'l bosib, katolik jamoatiga qarashli qabristonga borishdi. Biroq halok bo'lgan askar masihiy ekanligini bilib, katolik ruhoniysi shunchaki rad etdi va hissiy ohangda: "Kechirasiz, askarlar. Qabriston faqat katoliklar uchun. Bu yerda masihiylar uchun joy yo'q",- dedi. Ruhoniyni ko'ndira olmagach, ikki askar o'lgan askarning jasadini qabriston panjarasidan tashqarisiga- bir necha santimetr uzoqlikka olib borishdi. Ular qazishni boshladilar. Kuchli yomg'ir yog'ardi, kech bo'ldi,

ikki askar sayoz qabr qazishga muvaffaq bo'lishdi va oddiy duo o'qib, halok bo'lgan o'rtog'ini dafn etishdi. Ketishdan oldin ular qabr ustiga belgi sifatida yog'och xochni qo'yishdi. Urushdan keyin halok bo'lgan askarlarning otionalari o'g'illarining xoklarini Germaniyadan olib kelishga qaror qilishdi. O'shanda jasadni ko'mgan ikki askarni yordamga chaqirishdi. Katolik qabristoniga kelganlarida, ikki do'st do'sti dafn etilgan qabrni topish uchun harakat qilishdi. Ammo qabrni topa olmadilar. Ular ruhoni yordamchisidan aniqlashga qaror qilishdi. "Do'stimizni dafn qilgani kelgan kechamiz esingizdami? — deb so'radi urush faxriylari ruhoni yordamchisidan. "Siz uni qabristonga dafn etishdan bosh tortgandingiz, biz esa uni qabriston panjarasidan tashqariga ko'mib, belgi sifatida yog'och xoch o'rnatgandik. Qabrga nima bo'lganini bilasizmi?-deb so'radi do'stlar xavotir bilan. Keksa ruhoni yabristonni qoplagan o'rmonga tikilib biroz to'xtab qoldi. Ruhoni ko'zlarida yosh bilan shunday dedi: "O'sha kechasi men ko'rganlarimdan shunchalik ta'sirlandimki, ko'milgan askarning qabrini panjara ichida saqlash uchun katolik qabristonining devorini kengaytirdim".

Masih kelganida, Xudo sharoitlari va qaerda yashashlaridan qat'i nazar, Xudoning kechirimiga muhtoj bo'lgan dunyodagi barcha odamlarni qamrab olish uchun O'z sevgisining panjarasini ko'chirdi. Biz Xudoning qamrab oluvchi sevgisining chuqurligini to'liq anglay olmaymiz. Ehtimol, siz Xudoning o'zgartiruvchi sevgisining kuchini to'liq tushunmassiz. Biz Xudoning cheksiz sevgisining tabiatini to'liq tushunmasligimiz mumkin. Ammo Mavludda har bir kishi Xudo sevgisining mo'jizasi va kuchini his qilishi mumkin.

번역도움 정요셉